

2024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—

고린도후서

메시지 11

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짐에 의해
하나님과 함께 일함

성경: 고후 6:1-13, 7:2-3

- I.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기 원하는 모든 믿는 이는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— 엡 4:11-12, 딤후 1:16.
- A.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도록 모든 믿는 이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— 엡 4:16.
 - B.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생명이 필요하다 — 마 24:45-46.
 - C. 이 탁월하고 놀라운 사역은 탁월한 생명을 가진 탁월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. 그들의 생활과 존재는 그들의 행동과 일치한다.
- II. 우리는 (어떤 은사가 아닌)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. 이 생명은 풍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며, 완전히 성숙한 생명이고, 우리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이다. 즉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,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으며,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,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다 — 창 5:24, 히 11:5, 요 14:6 상, 행 27:22-25.
- A.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.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다 — 고후 5:20.
 - B.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,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.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 — 고전 3:9 상.
 - 1.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— 고전 3:9.
 - 2.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도 일하신다.
 - 3.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떠한 특권이며 영광인가!
 - C.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지려 한다면, 우리는 넓어진 마음,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— 고후 6:1-13, 대하 1:10, 왕상 4:29.
 - 1.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— 고후 5:18-20.
 - 2. 우리는 넓어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, 열린 입으로 모든 믿는 이에게 그들의 빛나간 실지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— 마 5:7, 6:14-15, 7:1-2.
 - 3. 우리는 공급하는 생명의 친밀한 관심을 갖도록 넓어져야 한다 — 고후 7:2-3, 살전 2:8, 빌 2:19-20.

- a.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이 장 마지막 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간청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친근한 관심을 표현했다.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된 후에 위로와 격려를 받아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— 고후 5:20.
 - b. 우리가 일을 수행할 역량이 있지만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.
 - c. 바울은 “우리는 아무도 괴롭힌 적이 없고, 아무도 해롭게 한 적이 없으며,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.”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— 고후 7:2.
 - d. 우리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— 고전 12:31 하, 9:22, 마 9:12.
 - e. 공급하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풍성들과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사람들을 보양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키는 생명이다 — 엡 5:29.
 - f. “내가 전에도 말했지만,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.” 이것은 친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— 고후 7:3 하.
- D.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와 7장 2절부터 3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음이 넓어진 사람,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본으로 제시한다 — 고후 11:23-24, 27-28.

III. 하나님과 완전히 화복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할 것이다 — 고후 5:18, 6:11-13.

- A.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된 정도에 달려 있다.
- B. 마음이 좁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부분적으로만 화목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— 고후 6:2, 롬 5:10.
- C. 우리가 마음 상한 일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넓어진 사람,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이다 — 마 18:21-35, 엡 4:32, 골 3:13.
- D.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지려면 우리는 넓어져야 한다. 매우 솔직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만큼 좁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— 고후 6:13.
- E.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에 더하여 넓은 마음도 주셨다 — 왕상 4:20, 29.
 - 1. “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슬기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” — 왕상 4:29.
 - 2.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올 참 지혜의 그림자였다 — 비교 고전 2:6-7.
 - 3.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한 가지의 두 방면이다. 지혜의 비결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.
 - 4. 지혜로운 이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어리석다.
 - 5. 사람이 좁고 그의 마음이 좁을 때 교만하게 되기 쉽다. 교만은 사람이 좁은 것의 표현이다.
- F. 우리는 마음이 좁은 것과 마음이 넓은 것의 대조에 인상을 받아야 한다.
 - 1. 좁은 마음 — 다른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음. 넓은 마음 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 — 눅 15:20-24, 23:34 상, 행 7:59-60, 막 11:25.
 - 2. 좁은 마음 — 우리 자신의 일을 관심함. 넓은 마음 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관심함 — 빌 2:19-21.
 - 3. 좁은 마음 — 개인적 영성을 관심함. 넓은 마음 — 교회를 관심함 — 고전 14:3-4, 12, 18-19.
 - 4. 좁은 마음 — 특정한 믿는 이들과 교회들만 위한 마음을 가짐. 넓은 마음 — 어떤 상태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이들과 모든 교회들을 위한 마음을 가짐 — 빌 1:8, 2:1-4, 고후 11:28.
 - 5. 좁은 마음 — 그리스도의 몸보다 자신의 지방 교회를 더 관심함. 넓은 마음 — 자신의 지방 교회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 관심함 — 엡 1:22-23.
 - 6. 좁은 마음 — 우리 자신의 일을 관심함. 넓은 마음 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관심함 — 엡 4:16, 골 2:19, 계 21:2.